

建築設計事務所의 經營組織實態에 対한 調査研究

◀從業員에 対한 心理学的 考察을 中心으로 ▶

李 璞 會 延世大副教授
任 鴻 彬 延世產業大學院

國文抄錄

本研究는 서울市에 分布되어 있는 1級 建築設計事務所中 34個所에서 122명의 建築設計 從業員을 對象으로 建築設計事務所의 規模에 따른 從業員들의 職業에 대한 滿足度, 士氣価値觀 作業条件에 對한 態度등의 心理学的 变化度를 調査하였다.

이상의 事項에 對한 資料는 規模에 따라 3그룹으로 分類하여 Chi-Test와 T-Test 檢証法에 의하여 設計事務所 規模別 各種變數들의 相異點을 分析 確認하였다.

結論에서 從業員들의 権益保護 動機誘發 士氣昂揚 등에 對한 問題點의 解決方案과 企業의 拡大와 安全性을 위한 理想的인 組織形態에 對한 모델을 提示하였다.

1. 序論

오늘날 經營組織問題를 単純한 技術經濟의 問題로서가 아니라 人間의 問題로서 보는 認識은 理代組織論에 있어서 하나의 中心的 課題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設計事務所는 組織의 基本이 되는 直系式組織(Line organization)職能別組織(Functional organization) 直系參謀式組織(Line & Staff organization)의 限界속에서 権限移讓의 関係를 外面하는 徹底한 一人 經營体制(one-man Management)를 行하기 때문에 이로 因한 企業의 拡大沮害, 作業의 制約, 將來性의 稀薄, 過重한 作業時間, 低賃金, 높은 転職率 等의 矛盾을 派生시켜 社會的 次元에서 時代에 逆行하는 듯한 印象을 주고 있다.

從業員의 65% 以上이 大學卒業者인 優秀한 職員들로構成되어 있지만 企業의 零細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從業員의 71%가 賃金에 對한 不滿을 갖고 있으며 51%가 転職을 하고자 하는 深刻한 問題點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設計事務所의 제 반問題點을 고려한合理的經營体制의 確立이 時急히 要請되고 있다.

人間은 自己가 屬해 있는 集團內에서의 所屬感 協同感 友情感 또는 同僚集團에 의한 収容感等을 重要視하고 있는 反面 自我慾求(ego needs)로서 自己信念, 自己能力, 滿足感, 他人으로 부터의 認定感, 將來性을 더욱 重要視하고 있다. 따라서 經營의 合理化作業의 策一段階로써 時代의 變遷에 따라 從業員들의 欲求水準을 잘把握하고 理解하여 刺戟하여 從業員들이 追求하는 諸般欲求를 充足시켜줄 수 있는 手段을 講究하여야 한다.

本調査研究에서는 서울市에 所在하고 있는 建築設計事務所 從業員 122名을 對象으로 從業員들의 社會經濟的 背景, 作業環境条件에 對한 態度, 職場에 對한 滿足度, 組織에 對한 態度등에 對한 心理学的 考察을 通하여 建築設計事務所 經營에 따른 問題點을 調査研究하였다.

2. 調査概要

1) 調査対象의 選定

本調査対象의 選定은 서울市에 散在하여 있는 1級 409個所의 設計事務所中 59個所를 各區別 設計事務所의 分布比例에 따라 選定하였다.

2) 調査者: 本研究者 外 4名

3) 調査期間: 1975. 10. 1 ~ 1975. 10. 7

4) 調査方法: 予備調査를 거쳐 任意選定한 (random sampling) 設計事務所에 對해 調査研究目的을 説明하고 本研究者의 案内書信과 함께 訪問時 調査表를 配付한 後 1日 経過後 回収하였다. 總 59個所中 34個所 122名의 応答을 얻었다.

5) 調査内容: 調査表는 経営主와 職員用 두 가지가 使用되었으며 그內容은 다음과 같다.

- (1) 経営形態
- (2) 従業員 및 設計事務所의 規模(size)
- (3) 入社基準
- (4) 設計事務의 経営上 重要因子
- (5) 設計費와 設計事務所間의 関係
- (6) 一般事項: 年齢, 学歴, 入社年数, 設計業勤務年数 経済水準 資格証所持与否
- (7) 作業環境: 照明 驚音 嘸氣 採光 冷房 (여름의 경우) 設計実面積 設計台의 크기(冊床, 의자, 作業面積 包含)
- (8) 満足度: 職業 賃金 出退勤時間 勤務時間 賞与金支給 休暇
- (9) 作業의 制約要素
- (10) 作業의 専門化
- (11) 経営主에 대한 意見

6) 分析方法: 資料의 統計分析은 Computer를 使用하여 頻度分布 平均值 相関關係를 求하였고 32個所 設計事務所를 従業員數에 따라 小規模(5人以下) 中規模(6~9人) 大規模(10人以上) 3子群으로 分類한 후 各 group間에 応答內容의 差異點을 Chi - Square検証을 通하여 比較 考察하였다.

表2~1 従業員數에 依한 設計事務所規模

group	大規模	中規模	小規模	総 計
從業員數	10以上	6人~9人	5人미만	
応答者數	41名	42名	39名	122名
設計事務所數	6個所	13個所		34個所

3. 우리나라 建築設計事務의 経営組織実態

3~1 現況

우리나라 建築設計事務所의 分布狀況은 表3~1과 같이 全國的으로 1407個所가 分布되어 있으며 이中서울에 645個所가 分布되어 있어 第一 많은 分布率을 보

이고 있으며 济州道가 20個所로 차장적은 分布率을 보여주고 있다.

特記할 만한 事実은 서울의 境遇 1級 建築設計事務所의 分布가 2級의 分布에 比해 越等히 높은데 比하여地方의 境遇 大部分 2級의 分布가 1級의 分布를 越等히 上回하거나 對同小異한 逆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 分布되어 있는 建築設計事務는 645個所로서 全國建築設計事務所 分布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中 1級 建築設計事務所가 409個所 2級 建築設計事務所가 236個所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各區別 建築設計事務所의 分布는 1級의 境遇 図3~1과 같이 中区

〈表3~1〉 地域別 設計事務所의 分布狀況

地 域 名	1 級	2 級	総 計	比率(%)
서 울	409	236	645	45.8
京 畿	44	44	88	6.3
江 原	13	13	26	1.8
忠 北	9	14	23	1.7
忠 南	28	53	81	5.8
全 北	16	20	36	2.6
全 南	24	53	77	7.5
慶 北	72	83	155	3.9
慶 南	22	53	75	7.3
釜 山	90	91	181	12.9
濟 州	11	9	20	1.4
總 計	738	669	1,407	100%

鍾路区 西大門区 城東区 竜山区 麻浦区等 서울의 中心地에 가까운 地域일수록 1級 建築設計事務所가 集中되어 있으며 永登浦区 冠岳区 東大門区 道峰区 城北区等 的各 地域에는 2級 建築設計事務所가 主로 分布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企業의 形態와 組織類型

우리나라 建築設計事務所의 企業形態는 株式会社와 個人形態의 2種類로 区分되는데 이中 85%가 個人形態로서 1人經營体制(one-man control)에 의한 直系式組織(Line organization)을 抨하고 있으며 極少數의 大規模 設計事務所에서는 株式会社形態에 의한 直系式參謀組織(Line & staff organization)을 取하고 있는 곳도 있다.

3~3 経営管理의 構造

本調査에서 나타난 建築設計事務所의 経営管理構造는 規模에 따라 図3~2와 같이 5가지 形態로 나타나고 있는데 各 組織構造別 分布 頻度數는 第3構造形態가 41%로 가장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第1形態와 같은 組織構造도 15%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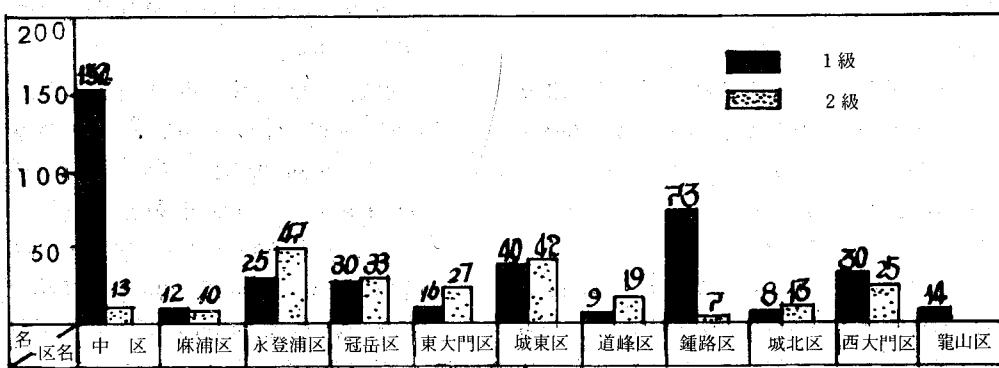


图 3.1 서울市 各区别 1級과 2級 建築設計事務所의 分布比較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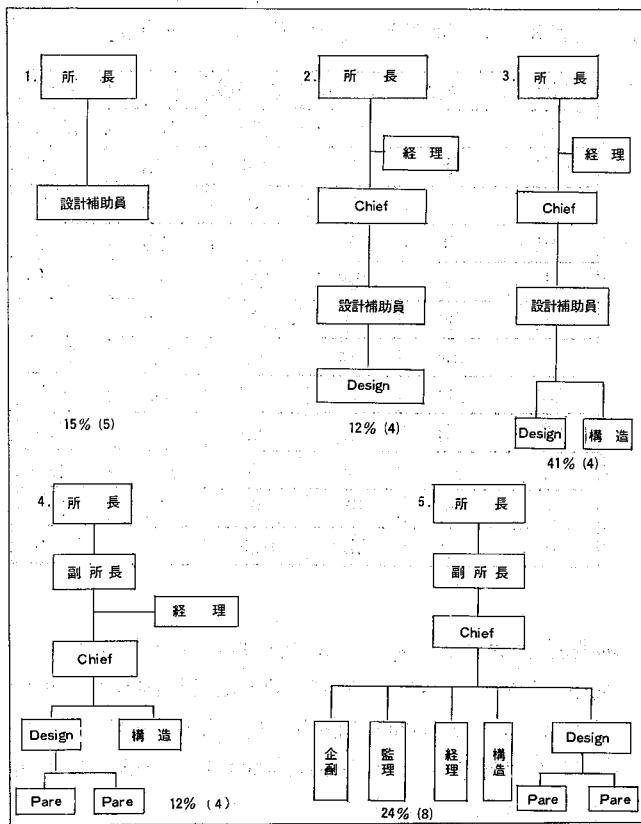


图 3.2 設計事務所 経営管理 構造

3~4 設計事務室規模

企業의 규모는從業員规模와 더불어企業의 社会的位置에 많은 影響을 미친다.

調査된 設計事務室规模은 7坪~11坪 规模의 設計事務室이 9개所로 第一 많았고 100坪과 250坪 规模의 大規模 設計事務所도 각각 1개소씩 있었다.

平均 1個 設計事務所당 所有面積은 28坪으로 中小業의 规模를 나타내고 있으며 個人당 所有面積은 3坪에 达하고 있다.

한편 從業員数에 따른 规模를 보면 3名~9名을 갖은 設計事務所가 全体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4名이 勤務하는 곳이 8개所의 設計事務所로 가장 많고 47名과 54名의 從業員을 가진 곳도 각각 1개所씩 있다.

平均 1個所의 設計事務所에서 8·9名의 從業員이 勤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専門職務部署

現在 우리나라 建築設計事務所의 職責은一般的으로 所長, 副所長, 室長, Chief 設計補助員, 技士等으로 呼称區分하고 있으며 이들의 業務는 所長의 경우 一般会社의 社長의 業務와 大同小異하며, 副所長, 室長, Chief는 規模에 따라 각各 職責의 名稱이 多小 差異는 있지만 大部分 設計事務所內의 技術的 責任을 担当하게 된다. 設計補助員과 技士는 一般会社의 社員과 같은 位置로서 각 設計事務所에 따라 그呼称이 技士或是 設計補助員이라 称하여 지고 있는데 이들은 각各 專門職務部署에 따라 配置되어 作業에 임하게된다. 이들의 職務別 分布狀況은 디자인(Design)이 全体의 74% %을 차지하여 第一 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고 構造部과의 比率은 15:1을 나타내고 있다. 其他の 7.4%는 無応答에 該當하는 者로 大部分 組織的体系의 不実과 経営管理上의 問題로 因해 그들의 職務部署가 애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從業員의 社会經濟的 背景

1) 教育水準

從業員의 社会階層別 水準을 測定하기 为해서 学歷을 調査한 結果 図4~5와 같이 大卒以上이 62% 高卒以上이 38%로 比較的 높은 教育水準을 보여 주고 있다.

2) 年齢

從業員의 年齡은 大規模 中規模 小規模의 規模에 따라 각各 平均 29歳 28歳 29歳로 比較的 均一한 年齡分布을 보여주고 있으며 全体 平均 年齡은 28歳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같이 平均年齡이 30未満인 것은 建築設計事務室의 特殊性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3) 勤続年数

設計事務所에서 勤務하는 従業員들의 勤続年数를 調査한 結果 図4·1과 같이 3年未満까지의 従業員이 33%를 나타내고 있으나 勤続年数 3年以上부터는 그分布가 급격히 하락하여 11%의 分布度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勤続年数가 増加할수록 従業員의 分布도 낮아지고 있으며 規模에 따라서도 總分布曲線과 大同小異한 現象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設計事務의 従事年数는 2年~4年이 전체의 44%로 가장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5年~7年까지가 그다음으로 33%를 차지하고 8年~10年이 6%를 나타내고 있다

근속년수	%	응답자수
1년 미만	34	42
1년~3년미만	33	41
3년~5년미만	10.7	13
5년~7년미만	9	11
7년~10년미만	3	1
10년 이상	6	7

4) 月收入과 支出現況

月平均 従業員이 収入程度는 2萬~6萬 원 収入의 分布는 54%로서 가장 높은 分布를 보여주고 있어 서울勤勞者 月平均所得額 59,240원과 比較할 때 낮은 水準의 所得임을 알 수 있다. 2萬원 以下의 所得者가 5%를 차지하고 있는反而 14萬원 以上의 所得者도 11%의 分布를 보이고 있는데 이 原因은 經營主의 応答이 包含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比해 月支出狀況은 図4·2와 같이 月收入에 比해 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어 設計事務所 従業員이 大部分이 課外 収入에 依存하고 있음을 推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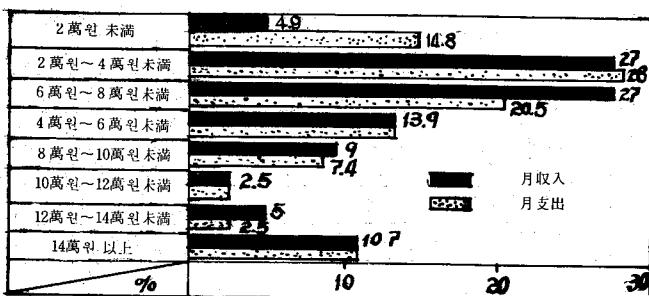


图 4.2. 月收入과 支出分布

5) 建築設計事務所의 入社動機와 入社基準

現在 勤務하는 建築設計事務所의 入社動機를 보면 資質向上때문이란 応答이 56%로 第一높은 分布를 보

이고 있으며 其他가 26% 将來性이 19.6% 賃金이 1.6%名声 0.8%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其他의 大部分은 将來性을 위한 資質向上이 動機였다는 応答이었다.

賃金과 事務所 名声보다는 將來를 위한 資質向上이 作業員들에게 더 큰 比重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設計事務所의 入社基準은 推薦을 為主로 하는 設計事務所가 74%를 나타내어 第一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고 其他(親旧의 緣故 및 親戚關係 實習)가 21% 試驗에 依하는 設計事務所가 6%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一般会社의 入社基準 方法과는 対照的인 것으로 徒第制度에 依한 伝統的인 方法에서 基因된 것이라 推測된다. 따라서 그影響은 組織全般에 通じ 오늘날의 設計事務所의 問題點을 안고 있는 主要原因이 됨을 알 수 있다.

5. 作業条件에 对한 態度

사람은 自己가 하고자 하는 일에 滿足을 느낄때 衣持와 自負心을 갖고 最大能力을 나타내므로 經營組織의 目的을 達成할 수가 있는 것이다.

作業時間 賃金 勤務時間 其他대우등 作業条件에 따른 設計事務所 職員들의 태도를 調査分析하였다.

5-1 作業時間

1日作業時間은 규모에 따라 図5·1과 같이 달라지고 있다.

規模가 大規模인 境遇 8時間~9時間 未満이 第一높은 分布를 보이고 11시간을 超過한 곳이 없다.

中規模 境遇 10시간~11시간이 第一높은 分布를 보이고 그以上 勤務時間에 대해서는 急激히 그 分布가 낮아지고 있다.

小規模 境遇 8시간~11시간 未満까지의 分布는 大体로 비슷한 分布를 나타내고 12시간 以上 勤務分布는 10%를 보여 주고 있다.

作業員이 願하는 作業時間은 보면 72%가 8時間의 作業時間을 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出退勤時間

出退勤時間은 午前9時 或은 9.30分으로 定해져 大体로 잘지켜지고 있으나 規模에 따라 退勤時間은 一定하지 않고 설사定해져 있더라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表5·1에서 보는 바와같이 實際出退勤時間과 規模에 따른 联関性을 χ^2 檢證法에 依拠 確認한結果 a (Level of significance) 0.05보다 安全한 値을 얻었다. 따라서 規模와 出退勤時間과는 相互 联関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小規模가 33% 中規模가 2% 大規模가 24%의 不滿을 나타냈는데 小規模 境遇 經營主의 原因에 따라 出退勤時間이 定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指摘되며 大規模 境遇 規模가 拡大 되었음에도 그規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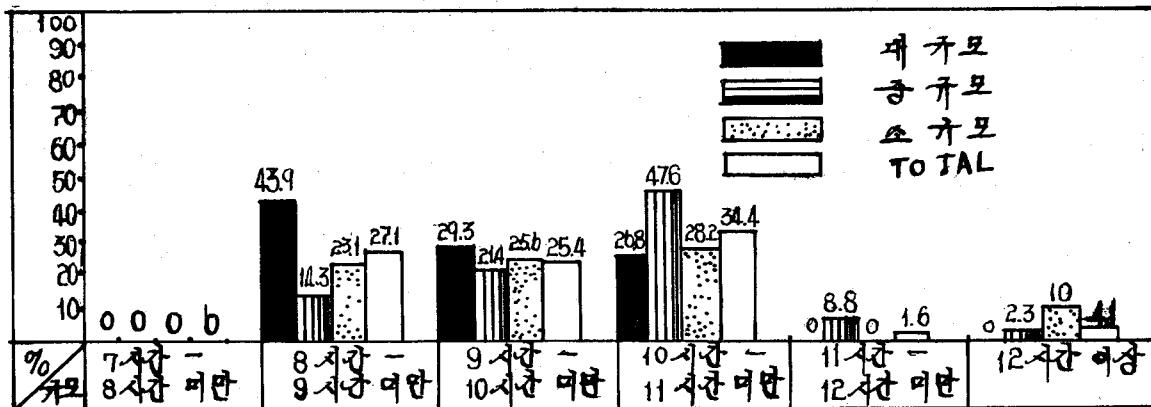


図 5.1 規格에 따른 作業時間의 变化図

比例한 体系가 円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 ~ 3 給 料

設計事務所의 給料에 对한 滿足与否는 다음 図 5.2 과 같이 71%가 不満足임을 알수 있었다. 規模에 따라서는 大規模가 71%로써 第一高은 不満足의 分布를 보이고 小規模가 64.1% 中規模가 47.6%을 나타내고

〈表 5・1〉 規模別 出退勤 時間

ITEM	大規模	中規模	小規模	TOTAL
満足하다	10	15	16	41
	24.39	35.91	41.03	33.61
그저 그렇다	21	18	10	49
	51.22	42.86	25.64	40.16
不満足하다	10	9	13	32
	24.39	2.15	33.33	26.23
TOTAL	41	42	39	122

CHI-TEST 8.656, D.F. 4, CCOE 0.257391.: 9 < 0.05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이와 같은 現象은 設計事務所에 따른 職員들의 價値觀에 对한 影響과 一定 作業員數에 对한 規模의 拡大에 따른 經營의 不實에 因한 것이라 풀이된다. 또한 現狀態下에서 設計事務所의 給料는 適當한 것인지의 与否를 調査하였더니 適當하지 못하였다는 応答이 82%를 차지하는 높은 不滿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 45%가 아주 適當하지 못하다란 強한 不滿을 나타내고 있었다.

規模에 따라서는 大規模인 境遇 75% 中規模가 57% 小規模가 68%를 나타내므로 中規模의 境遇가 設計事務所의 運營에 비추어 大規模나 小規模보다 比較的 좋은 待遇를 받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規模別 設計事務所 給料의 適當性 与否를 紛明하기 위해 Chi-Test한 결과 表 5・2 과 같이 α (Level of significance) = 0.05로 할 境遇 D.F (Degree of F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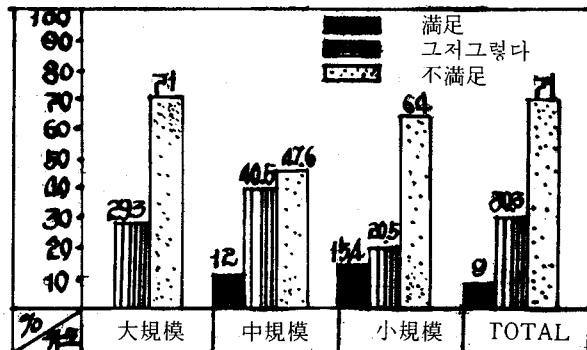


図 5.2 給料에 对한 滿足度 与否

edom) = 8 이므로 $p < 0.05$ 가 되었다.

따라서 現狀態下에서 設計事務所 給料의 適當性 与否는 規模와 関聯性이 있음을 確認하였다.

（表 5・2） 設計事務所의 現給料 与에 대한 適當性

ITEM	大規模	中規模	小規模	TOTAL
適當하다	0	5	7	12
	0.00	11.90	17.95	9.84
그저 그렇다	10	13	5	28
	24.39	30.95	12.82	22.95
불적당하다	31	24	27	82
	75.61	57.14	69.23	67.21
TOTAL	41	42	39	122

CHI-TEST 10.86500 D.F. 4 C. Co E 0.28596 i.p

이와 같은 現象은 小規模 境遇一人 經營의 不條理에서 起因된 것이라 하겠으며 大規模 境遇 社會的 水準에 比해 過渡期에 있는 設計事務所의 組織的 体系가 이에 補助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며 一人經營의 限界性도 또한 主要한 原因이라 하겠다.

5~4 賞与金

有給休暇 보너스 特別手当等 賞与金의 支給与否는 図5~3과 같이 33%가 賞与金을 支給받고 있고 30%가 支給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其他의 37.7%는 経営主 任意로 支給받을 때도 있고 支給받지 못할 때에도 (1年을 基準) 있음을 表示하였다. 이를 다시 細分化하여 規模別로 分類調査하였더니 中規模가 賞与金 支給率이 第一높고 小規模가 第一낮은 現象을 알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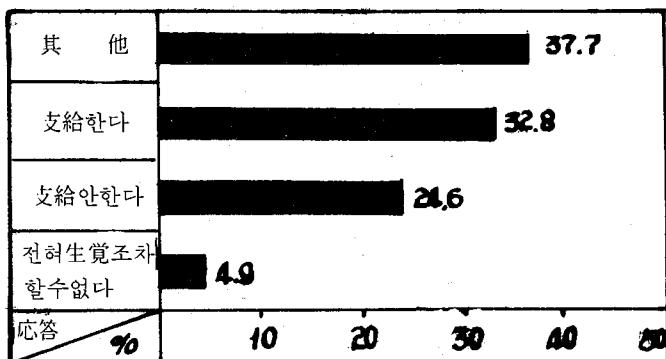


図 5.3 賞与金支給関係

5~5 休 暇

建築設計事務所의 年 休暇分布状況은 図5~4과 같이 5日~9日이 41.8%로 第一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年中無休인 分布도 23.8%나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状 況

規模別 休暇分布 状況은 中規模가 比較的 다른规模에 比해 休暇 日数의 分布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休暇状况은 規模에 따라相互 影響을 받음을 檢証 $x^2 = 19.5dt = 10p < 0.05$ 할 수 있었다.

5~6 作業에 对한 滿足度

設計自體의 作業에 对해서 滿足 与否를 調査한 結果 図5~5와 같이 滿足과 不満足이 똑같은 分布를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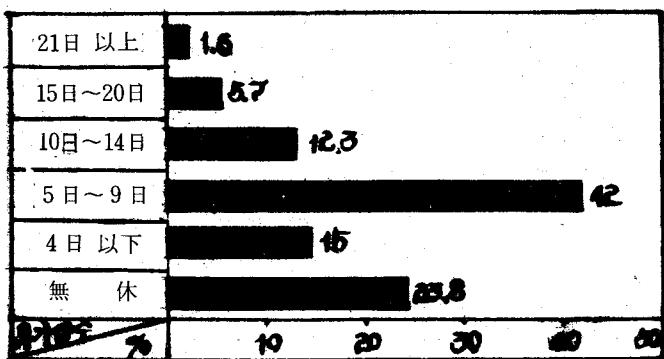


図 5.4 建築設計事務所의 年 休暇分布状況

또한 規模別 滿足度의 差異를 調査하였더니 図5~6와 같이 大規模에 不満足이 第一높은 反面 滿足度의 分布도 第一낮은 것을 알수있으며 中規模에서는 이와는 対照를 이루고 小規模에서는 30~35%의 均一한 分布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이와 같은 現象은 大規模인 境遇 規模가 拡大 될수록 組織의 体係가 形成되어 作業自體가 細分化 專問化되고 있기 때문에 作業者의 意欲상실에 基因된 것으로 解析되며 小規模의 境遇 作業自體가 小規模일 뿐만 아니라 設計全面에 걸쳐 自己意思를 充分히 살릴수 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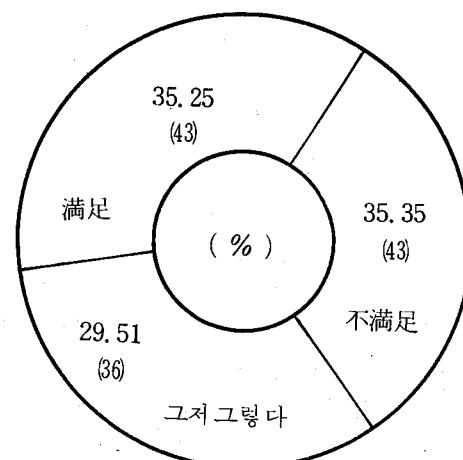


図 5~5 作業에 对한 滿足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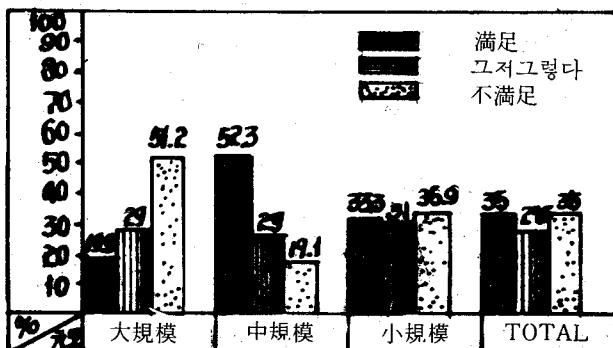


図 5~6 規模別 作業에 对한 滿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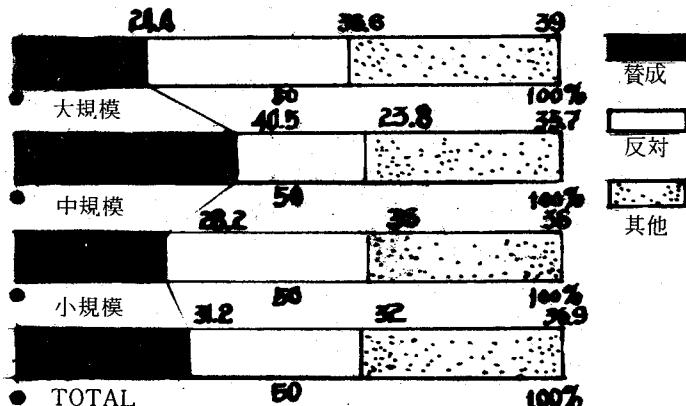


図 5~7 分業化에 对한 意見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規模에서 오는 作業에 对한 滿足与否와의 連関性을 Chi-square Test를 通해 檢証하였더니 의미있게 나타났다.

따라서 規模와 作業에 对한 滿足度与否와의 関係는相互 連関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5 ~ 7 分業化에 对한 態度

設計事務所의 分業化에 对하여는 図5 ~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5%가 分業制에 依한 作業을 賛成하고 32%가 反對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其他의 45%는 分業制에 对한 賛成을前提로 応答한 後 經營主의 意思가 作業員에게 現在보다 더 多은 影響을 미칠 憂慮時期尚早 全般的인 工夫를 할수없다 등을 指摘하고 있으며 事實上 70%以上이 分業化에 对해 賛成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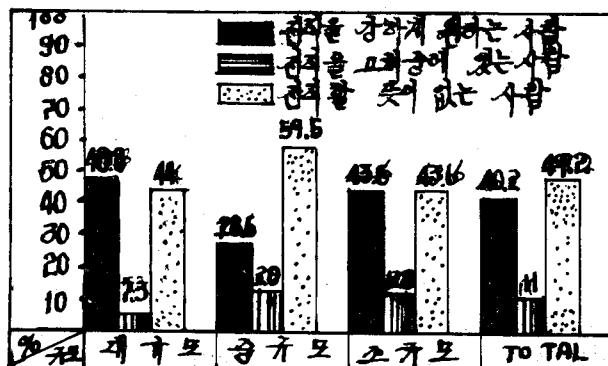


図 6.1 設計事務所 従業員들의 転職与否

6. 従業員의 職業에 对한 滿足度와 意識構造

6 ~ 1 転職率

設計事務所 職員들의 過去転職率은 確実한 統計가 設定되자 않았지만 本調査에서 転職意思를 表示한 比率은 図6 · 1과 같이 40%를 차지하며 11%가 転職의 可能性을 비추고 있어 約51%에 該當하는 設計事務所 職員들이 転職意向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있었다.

職業에 对한 滿足度는 図6 · 2와 같이 54.1%가 滿足으로 20%가 不滿足으로 26%가 그저 그렇다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転職을願하는 사람中 職業에 不滿을 가진 者도 있지만 職業에 滿足하는 사람도 包含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다.

規模別 職業에对한 滿足与否를 調査하였더니 図6 · 3과 같이 中規模에서 가장 높은 滿足度를 나타냈고 이어 大規模 小規模順이 된다.

規模에 따른 職業의 滿足与否를 Chi-Test를 通해 檢証하였더니 表6 · 1과 같이 α (Level of Significance)를 0.05로 할 경우 $p < 0.05$ 로써 職業의 滿足与否는 規模에 影響을 받는다는 것을 確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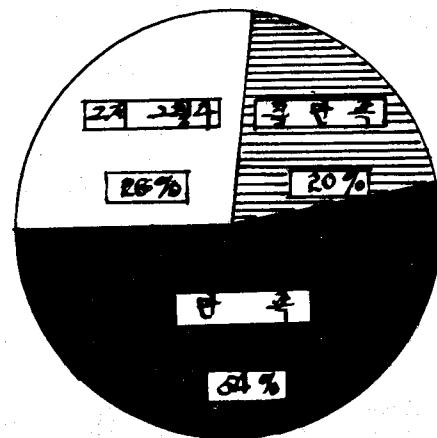


図 6.2 職業에 对한 滿足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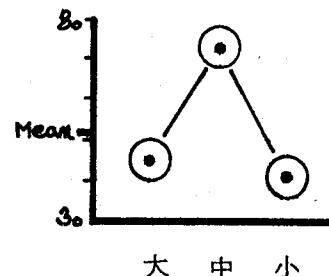


図 6.3 規模別 職業에 对한 滿足度

〈表 6 · 1〉 規模別 職業에 对한 滿足

ITEM	大規模	中小規	小規模	TOTAL
滿 足	19	31	16	66
	46.34	73.81	41.03	54.10
그저그렇다	11	9	12	32
	26.83	21.43	30.77	26.23
不 滿 足	11	2	11	24
	26.83	4.76	28.21	19.67
T O T A L	41	42	39	122
CHI-TEST	12.64307	D.F. 4.C. COE		

6 ~ 3 意識構造

1) 價 値 觀

建築設計事務所 従業員들이 設計土로써 裕持와 自負心을 갖고 있는지 与否를 調査한 結果 図6 · 4와 같이 中規模의 設計事務所 職員들이 확고한 價值觀을 갖는 程度가 61.9%로 第一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大規模의 경우 裕持와 自負心이 없다가 23%로서 제일 높고 그저그렇다의 分布는 規模에 差異없이 大同小異함을 알 수 있었다.

계속